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포도나무」발행  
<http://budoounoki92.com/>

# 하나가 되자!

~생명의 그림책<생명의 실을 만나는 책>~

복음 책판



##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 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뛰든지  
털어 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족" 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인 대학생 아이(愛)는 요즘 들어 남자 친구에게 휘둘리고 있는 친구 메구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만 있는 교실에서 메구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愛)에게 자신의 속 마음을 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메구미: 「아이(愛) 야, 나는 남자 친구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아무것도 필요없어. 부모님과는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친구들과도 그다지 깊이 사귀지 않으니까..... 음, 언젠가 적당히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렇고..... 이제 와서 어쩌지도 못하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愛): 「메구미야, 정말 그걸로 괜찮니? 성경책에는 메구미가 태어나기 전부터 메구미에게는 "단 하나뿐인 사람" 이 있다고 쓰여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남자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한 사람의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짓밟기 위한 발에서 꺼낸 뼈나 여자가 남자를 깔고 앉아 있기 위한 머리에서 꺼낸 뼈가 아닙니다. 서로를 도울 짹으로서 사이 좋게 나란히 걷도록 겨드랑이에서 꺼낸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소중히 사랑하고 부양하도록 심장에서 가까운 왼쪽에서 꺼내셨습니다. 남자의 뼈에서 남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남자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복수의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갈비뼈를 준 사람"과 "갈비뼈를 받은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남녀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을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탄생하기 전부터 당신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짹"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 창세기 2장 22절 ~ 24절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서는 남자에게 주어진 그 여자를 "도울 짹"이라고 합니다.

####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짹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래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도울 짹" = 여자인데 거기에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 서로 돋는 자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로서 천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메구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계시는 "단 하나뿐인 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메구미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어 조금이라도 그의 이상형의 여자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를 거절 할 수 없어서 그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구미에게 아이(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남녀 관계에 대해 성경책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愛):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 몇 번이나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 그것은 앞으로 만날 당신의 "단 하나뿐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야. 지금은 임신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룰을 깨는 행위야.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맞이하는 부부로서의 인연, 받아들일 환경이 되어 있는 곳에 축복의 아이를 점지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거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이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부부의 관계와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혼이나 학대 같은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결국 상처 받는 건 태어날 아이야. 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고민하거나 그만둬 버릴 결단을 해서 중절하는 것은 귀한 목숨을 지워 버리는 것이야. 특히 여성에게 심신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메구미가 남녀 관계에 대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던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언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만큼 남녀 관계는 중요한 거야.」

메구미: 「그렇구나..... 하지만 내 친구들은 거의 임신해서 결혼했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니? 한번 하나님의 룰을 깐다면 용서받지 못하니?」

아이(愛): 「괜찮아! 성경책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께『미안합니다』『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면 모든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 누구나 새로운 토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꼭 이 기도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줘.」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혼의 룰을 깨며 오늘까지 걸어 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축복 받은 부부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튼튼하게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아멘」은 "그렇게 됐다라고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 히브리서 13장 4절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해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상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사람뿐입니다. 한 번의 성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경고는 당신 자신이 밭을 축복을 위해..... 제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십시오.

메구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날 메구미는 아이(愛)와 함께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활 방식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어떤 것이 쓰여 있는지를 더욱 알고 싶게 되어 아이(愛)와 함께 성경책을 배우는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2절

【그러므로 너는 네 젊음의 날에, 곧 네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성경책을 인생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안 메구미는 성경책의 가르침을 따름에 따라 점점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대로 많은 축복을 받고 취직 자리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구미는 마코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단 하나님인 사람"을 만날지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상대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라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아마 지금까지 경험했던 좋아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평안, 무엇보다 확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메구미와 마코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타이밍으로 만난 그 날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일, 취미, 휴일을 지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 갔습니다.

메구미: 「나는 마코토가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마코토도 나에 대해 알아 주길 바래. 나는 집에 있더라도 진짜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없었고 부모님도 나에게 무관심해서 많이 외로웠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친구가 가장 소중했고 내가 있을 곳은 친구가 있는 곳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주위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며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느새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이 되어 점점 진짜 내 자신이 없어져 갔어. 연애 이야기는 즐겁지만 혼자가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모든게 헛되게 느껴지거나 맥 빠졌을 때도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모르게 되었을 때 성경책을

알게 됐어. 성경책에는 우리 인간은【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라고 쓰여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인생을 보낼 계획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 나는 그 때에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히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마코토도 같아.」

#### 시편 139편 13절~16절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려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마코토는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며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메구미의 태도에 더욱더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구미를 바꾼 성경책을 자기도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코토: 「..... 하지만 성경책은 어려울 것 같아. 메구미는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메구미: 「괜찮아. 성경책은 전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러브레터야. 나도 처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책 안에서 증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 자연히 알 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이께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야. 그저 목소리를 내어 고백하는 것뿐이니까 마코토도 받아들여 보지 않을래?」

마코토: 「그렇구나. 목소리를 내어 고백할 뿐이라고? 그럼 나도 받아들여 볼게.」

소리를 내어 읽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드리오니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또 저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하사 해 주십시오. 저의 전신을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바로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주세요. 받았다고 믿고 혀를 움직이겠습니다.

(라라라라..... 라고 소리를 내어 혀를 움직여 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방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표와 기적을 수행해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10절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증인이 될 것이다.】

그 후 마코토는 메구미와 함께 매주 성경책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결혼은 동경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과 평생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경책에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애당초 결혼은 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가족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 안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성경책의 말씀을 따르고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가족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똑같이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부모님, 형제도 소중히 생각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랍니다. 결혼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상대의 가족도 잘 이해하며 또한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사람"에 관심을 가지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갈비뼈를 준 남자와 갈비뼈를 받은 여자가 만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머지않아 부부가 되며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가족』을 주고 계십니다. 태어난 아이는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참는 것, 책임감 등 많은 것을 배우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 가정에서 배운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흡수해 갑니다. 그런 모든 토대가 되는 가정 환경의 시작이『결혼』입니다.

그 결혼에 의해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를 만들고 머지않아 나라를 만들며 세계를 만든다! 그만큼『결혼』은 중요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 히브리서 13장 4절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메구미 : 「목사님의 이야기는 매번 성경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나 그 성경책의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 책의 말씀에 기초를 둔 생활 방식이 가능한 것 같아. 성경책에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목사님의 이야기는 진실된 가르침! 계속 듣고 싶다고 생각해. 이전에 목사님께서『※교회는 하나님 가족의 식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 가족으로 둘러싸인 식탁처럼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되어 개개인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성경책의 말씀을 먹여 주시는 장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가족이 있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장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야.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마태복음 18:20)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교회 = "모두가 모여서 목사가 가르치고 성경책을 배우는 모임"을 말합니다.

마코토, 나는 우리 두 사람만 잘 이해하고 사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게다가 둘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이해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코토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마코토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마코토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며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생각했어.」

마코토: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이전에 메구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소중히 만들어져 태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었지? 그러니까 나도 메구미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혼은 우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의 가족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성경책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생활 방식에 대해 쓰여 있구나. 당연한 일인데 모른 채로 살아온 것이 많아서 성경책을 공부할 때마다 반성하는 일이 많아. 굉장히, 굉장히! 상상하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구나.」

그 때부터 메구미와 마코토는 서로를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장래의 일도 시간을 들여 같이 상의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16절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코토: 「메구미,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지 않을래?」

메구미: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으로부터도 축복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 전도서 4장 9절~11절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무사히 결혼식을 하고 법률상으로 혼인 신고까지 마칠 수 있을 때 당신의 단 하나뿐인 동반자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책을 충실히 따라 온 마코토와 메구미는 하나님께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축복받아 ‘하나님의 뜻’ 그대로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 마태복음 19장 4절b~6절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둑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

시편 127편 3절~5절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것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될 여자의 배속에서 아이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16절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려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 되었습니다.】

메구미: 「우리는 이 아이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아버지" "어머니" 가 되었어요.」

마코토: 「자,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켜 부양할거야.」

메구미: 「나는 어머니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이 아이를 예수님 안에서 어른이 되게 키워 갈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책임은 크겠지만 이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성경책』을 따르며 키운다면 괜찮겠지요?」

마코토: 「맞아. 둘이서 힘을 합쳐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으로 키워 가자구!」

아이의 이름은 미치루라고 지었습니다.

마코토: 「오늘부터 미치루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 태어나 줘서 정말 고마워..」

전도서 4장 9절~12절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어머니의 태내에서 아이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탄생시킨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신 책이【성경책】입니다. 거기에는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와 아이의 관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 아이의 장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으로서의 도리(양식) 등, 모든 답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진리)을 따르며 아이를 키워 간다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잠언 3장 1절~8절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다.】

### 잠언 3장 13절~20절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온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을 그 자리에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 잠언 3장 21절~26절

【내 아들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네 목에 걸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네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누울 때, 네 잠이 달 것이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네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미치루는 만 세 살이 되었습니다.

### <어느 날의 저녁 식사 시간>

메구미: 「미치루, 햄벅 스테이크만 먹지 말고 샐러드도 먹어야지.」

미치루: 「싫어, 못 먹겠어.」

메구미: 「왜? 맛있는데. 야채도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야.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은 없는 거야. 그리고 미치루가 안 먹으면 야채를 열심히 기른 농부 아저씨나 미치루를 위해 열심히 요리한 엄마도 슬퍼져.」

미치루: 「모두가 미치루를 위해 만든 거야? 그럼 조금 먹어 볼게! ..... 아, 먹을 수 있네!」

메구미: 「그렇지? 토마토에는 토마토, 양상추에는 양상추의 맛이 있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며 먹자.」

### <놀이터 그네에서>

메구미: 「미치루, 친구들도 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양보해 주면 어떨까?」

미치루: 「싫어. 더 탈거야!」

메구미: 「미치루, 성경책에는 친구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해 주라고 쓰여 있어. 미치루가 그네를 타고 싶을 때에 친구가 양보해 주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될 거 같아?」

미치루: 「싫을 거야. 양보해 주면 좋겠어.」

메구미: 「그렇지? 그럼 우선 미치루가 친구에게 양보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어.」

미치루: 「알겠어요..... 자, 다음 네 차례야, 타!」

메구미: 「미치루, 정말 착하네. 잘했어.」

### <외출했을 때>

이웃 아주머니: 「미치루야 안녕! 아빠하고 같이 어디 가는 거야? 잘 다녀와.」

미치루: 「.....」

마코토: 「미치루, 인사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되지. 언제든지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인사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치루가 씩씩하게 인사하고 있을까?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며 보고 계셔.」

미치루: 「그래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다녀 오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이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해서 마음과 양식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된다면 어른, 아이 상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히 예수님(성경책)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 없이 성경책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완벽한 분=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순수합니다. 미치루는 이 세상의 상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성경책의 말씀을 몸으로 익히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 신명기 6장 6절~7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 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 골로새서 3장 18절~21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 주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 < 어느 주말..... >

### 금요일

미치루: 「아빠, 다녀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마코토: 「고맙구나 미치루야. 오늘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일하고 왔어.」

메구미: 「일주일간 수고했어요.」

마코토: 「미치루, 내일은 뭘 할까?」

미치루: 「아빠와 엄마와 함께 놀러 가고 싶어요!」

마코토: 「그래? 어디에 가고 싶니?」

미치루: 「소풍 가고 싶어요!」

마코토: 「좋은 생각이네.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소풍 가자꾸나.」

메구미: 「잘됐네, 미치루야. 기도가 이루어졌네. 그럼 엄마는 도시락을 쌀게.」

미치루: 「우와 재미있겠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 토요일

그리하여 세 사람은 소풍을 갔습니다. 마코토와 메구미는 힘차게 노는 미치루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코토: 「정말 미치루는 귀여워. 태어났을 때도 이 보다 더 귀여운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치루가 커 갈수록 귀엽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더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미치루가 태어나 당신과 우리 셋이 가족이 되고 나서는 일할 때도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어.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어. 둘도 없는 가족을 주시고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해.」

메구미: 「그래요. 나는 미치루의 성장을 지켜보며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따라 아이를 교육시키며 나 자신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방법으로 교육시켰지만 불안할 뿐이었어요. 초조해져서 부당한 이유로 꾸짖었고 미치루에게 상처 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께서는 나와 함께 있어 주셨어요. 미치루의 마음도 내 마음도 모두 아시고 반드시 우리가 성경책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육아를 통해 부모인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코토: 「아이는 부모님을 보고 성장하니까 부모인 우리가 우선은 성경책을 따르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메구미: 「앞으로 더욱더 성경책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해 가요. 내일의 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다음 날 집회에서 마코토와 메구미는 성경책의 말씀에 의해 키워진 히카리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히카리: 「저는 초등학교 오학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의 말을 읽었을 뿐이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 날은 계속 울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크리스천이 되셨는데 항상 성경책을 읽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성경책을 손에 들고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히카리 앞으로 보낸 편지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아무 생각 없이 펴면 그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히카리가 읽어 주길 바라는 것이 쓰여 있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 어렸던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성경책을 펴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펴졌는데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받았구나!』 라며 성경책을 화제의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일도 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친절하게 성경책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돌아왔을 때에는 『성경책에는 싸우게 만들거나 불쾌한 마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마귀라고 쓰여 있어. 그러니까 친구는 나쁘지 않아.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자.』 라며 내가 성경책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화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화해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화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쁘게 되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더욱 강하게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때라도 결코 자신의 의견을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바로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히카리, 성경책을 읽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물어 보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펴니【부모님을 따르십시오】【당신의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제가 한 짓을 반성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납득 가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예수님이라는 관계 안에서 진심으로 "내가 잘 못했구나"라고 인정하며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안에는 같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답도 하나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두를 예수님께 신뢰하며 맡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화에는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고 성경책의 말씀이 생활 속에 확실히 뿌리 내려 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책의 말씀을 계속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저를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책을 따르는 "가정 교육"을 절대 굽히지 않고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라는 기반이 있는 가정 교육은 이치에 맞게 일관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말하거나 행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어떤 때는 성경책의 말씀에 따라서 저를 격려하다가 또 어떤 때는 어머니의 감정을 따라

꾸짖고 있었다면 제 신앙은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면 제 신앙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어리더라도 부모님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눈에 비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고 항상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성경책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저와 함께 확인하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법이나 계획으로 아이를 키우기 보다 '예수님= 성경책'을 토대로 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쉽고 평안한 것인지를 어머니 자신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키워진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히카리씨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한 사람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크리스천)"로서 히카리씨를 키워 온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을 따라 아이를 키워갈 때에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성경책을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의 책임은 크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어머니"가 될 자격을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미리 아이를 키우기 위한 책【성경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는 베스트 셀러의 책입니다. 어느 서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출판되고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책이 당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행동을 혈액형이나 성좌 등의 그룹으로 나눠서 묶어 놓는 것처럼 패턴화 해서 인간을 만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신의 교육 방법이나 계획을 바꾸거나 실천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4시간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책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실천하는 힘도 지속되는 힘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식의 교육에 대해 이치에 맞는 일관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령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카리씨의 증언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메구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부모와 아이의 모습, 그리고 성경책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13절

【내 아들아, 이런 말씀에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시편 112장 1절~4절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자기 사랑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참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나 부모의 권위(힘)를 써서  
아이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치관으로 아이의 장래나  
희망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 아버지·어머니는 전세계를 통틀어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고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장래는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인해 바뀌어 갑니다. 부모가 갈등하면서 제멋대로 키운 아이는 본래 살아가야 하는 길에서부터 벗어나 버려 고민하며 힘든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정 교육이 아이에게도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제까지 어떤 것(씨)을 심어 왔나요?

성경책에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밖에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나쁜 짓을 한다면 우선은 자신의 교육 방식을 반성해야 합니다. 원인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따라 아이의 양심이나 지성을 교육해 갔을 때 당신은 자신이 심어 온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심는다면 아이로부터 사랑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따라 양식을 심는다면 아이도 부모인 당신도 결코 부끄러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천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에 대해 축복받은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부모의 일=가정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토대가 되는 것이 "가족이 만들어 가는 가정"입니다.

###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 잠언 17장 25절

【어리석은 자식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고통을 안겨 준다.】

### 잠언 19장 18절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 잠언 22장 6절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 잠언 22장 15절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 잠언 23장 13절~14절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 잠언 29장 15절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 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 잠언 29장 17절

【네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네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네 영혼에 기쁨을 안겨 줄 것이다.】

### 잠언 20장 30절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 잠언 6장 23절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 신명기 6장 6절~7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 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 이사야 54장 13절

【네 모든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네 자녀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 교육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8절a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올리는 종과 시끄러운 팽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뚫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책의 말씀을 받으며 성장한 미치르는 만 아홉 살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미치루의 만 아홉 살 생일이군요. 축하 합니다. 성경책에 쓰여 있는 성령의 열매도 【사랑 · 기쁨 · 평화 · 오래 참음 · 자비 · 착함 · 성실 · 온유 ·

절제】의 아홉 가지입니다. 저는 집에서는 두 딸을 키운 엄마인데 성령의 열매의 순서를 보니 딸을 키우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이는 탄생해서 만 한 살까지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의【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만 두 살이 되면 【기쁨】이 넘치며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 만 세 살이 되면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다는 【평화(평안)】가 마음 속에서 우러나고 만 네 살이 되면 유치원에 감으로 친구가 생겨 참으며 용서하는【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만 네 살 까지 소중하게 키워온 사랑이 부풀어 커지고 만 다섯 살이 되면 자연이나 동식물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다정한 마음이 생겨나서 소중히 생각하며 감사하는【자비】가 자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만 여섯 살이 되어 【착함】, 만 일곱 살이 되면 【성실】, 만 여덟 살이 되면 【온유】, 그리고 만 아홉 살이 되어서 【절제】를 기릅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 라며 그 성장에 감동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 사랑이나 주위 환경,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 하나 순번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열매도 살아가기 위해 인간

에게 중요한 마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몸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그냥 뒤 버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이에 맞게 키워 가는 것이 부모의 소임이며, 마음을 키우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요?

오늘 미치루는 아홉 번째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굉장히네요. 만약 성령의 열매 이외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탄·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나쁜 것, 나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연마해 주세요.」

미치루: 「네!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개 열려서 기쁩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이 날 마코토와 메구미는 성경책의 말씀에 따른 가정 교육의 훌륭함을 다시금 실감하며 가정 안에 큰 열매가 열린 것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는 레일(계획) 위에 올려 놓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가정 교육』을 성경책에 따라서 시작해 주십시오. 부모와 아이가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많은 말씀(씨)을 당신의 가정이라는 "뜰"에 뿌리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 씨는 물(사랑)을 주는 것에 의해 성장하며 머지않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열매야말로 성경책에 쓰여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기쁨·평화·오래 참음·자비·착함·성실·온유·절제】입니다. 아무쪼록 가정 안에서,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 사이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잠언 24장 3절~4절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어느 결혼 기념일, 마코토와 메구미는 고등 학생이 된 미치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께

결혼 기념일 축하 드립니다.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며 많은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일에도 성경책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해 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기뻤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부부로서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하고 항상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부부 관계,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빠, 엄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둘도 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가정을 만들어 간다..... 가족을, 그리고 생명도!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이구나. 저도 우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반자를 위해 나 자신을 소중히 하고 내가 아빠와 엄마로부터 배운 것을 장래 태어날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성경책을 따라 생활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 항상 저를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의 아이로 태어 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아빠, 엄마, 사이 좋게 지내시며, 또한 우리 가족 사이 좋게 지내요. 예수님, 저를 위해 너무 소중한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미치루.』

"아버지" "어머니" 라고 불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아이를 점지 받은 후, 당신은 처음으로 부모가 되게 됩니다. 아이에게 있어 "아버지" 는 한 사람, "어머니" 도 한 사람

입니다. 대신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아버지" "어머니" 라고 불리고 있다면 부디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장래 "아버지" "어머니" 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를 소중히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것은 당신이 키운 아이들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 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에 의한 생명의 이어짐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중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족 관계 안에서『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에 대해 배울 것을 정하셨습니다.

받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사람으로  
도움 받는 사람으로부터 도움 주는 사람으로  
위로 받는 사람으로부터 격려하는 사람으로  
주위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모형제 대하듯 주위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으로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솔직하게 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을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족의 온기를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정을 만드는 사람으로

가정은 사람이 나이에 맞는 그릇(인간)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성장해 가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훈련시켜 주는 것은 "가족"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 책을 통해 가족이란, 가정이란, 그 의의와 책임을 다시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단 하나 밖에 없는 당신의 짹」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키움」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가 되자!

우선은 당신의 가족부터.....

스가랴 4장 10절 a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

2012. 10. 16 「포도나무」발행

우리 교회 「포도나무」란 성경책 요한복음15장에서 따 왔습니다.

【"나(예수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하나님)는 정원사 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크리스천)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 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중략).....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략).....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 에스겔 제34 장의 예언에 따라 모여서 성서 전부의 말씀을 사랑하며 믿고 실천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책의 말씀은 「일러스트 쉬운 성경」(주:아가페 출판사)에서 인용.